

금요 양성 2025년 3월 14일 바티칸 문헌- 친교와 사명 2부

단위형제와 나누시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Lumen Gentium*)과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 나와 있는 친교(형제회)와 사명(사도직)

이 양성을 준비해 준 국가형제회 양성위원회, 앤 멀킨, OFS 에게 감사드린다.

친교와 사명은 분리될 수 없다. 친교는 복음화의 사명에 필요한 사랑과 후원을 제공한다. 친교와 사명의 보완적인 본질의 예를 마태 복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도들은 일치된 몸이 되어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받는다. (마태 28:19)

이 두 문헌을 주의깊게 읽으면 친교와 사명이 밀접하게 엮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명은 교회 정체성의 극히 중대한 일면이다. *인류의 빛*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기쁨과 희망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문헌은 우리가 사도직 활동에 참여해서 가족, 직장, 사회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이 문헌들은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기쁨, 희망, 걱정,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깊은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사명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공동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일치의 표지이며 인간 존엄과 정의의 촉진자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친교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복음의 변혁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세속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너무 깊이 참여해서 친교(형제회)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지치고, 낙담하게 될 수도 있다. 친교는 교회의 사명을 세상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랑과 후원을 제공해 준다.

이 두 문서를 읽고 공부하고 싶으면, 다음에 제시된 요소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성사로서의 교회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의 표지이다.

- 하느님의 백성
- 평신도직
- 거룩함으로의 보편적 성소
- 성모 마리아와 함께 순례하는 교회
- 복음화를 위한 열망
- 교회와 세상간의 대화
- 인간의 존엄성
- 가족의 역할

- 사회 정의
- 현대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교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현대 세상속에서 계속 살고 일하게 된다.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한 통찰은 우리의 삶에 적절한 것이며 더 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지침이 된다. 우리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을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OFS 회칙 14조의 문단)

이 문헌을 읽어 보고 싶으면 아래의 바티칸 웹사이트에 읽어 볼 수 있다.

인류의 빛 (Lumen Gentium):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41121_lumen-gentium_en.html (영문 사이트)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한글 번역본은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사이트에 있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읽어 볼 수 있다.

<https://cbck.or.kr/Documents/Council>

토론을 위한 질문: 이 두 문헌과 우리 회칙에 비추어, 당신과 당신의 형제회는 좀 더 나은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습니까?